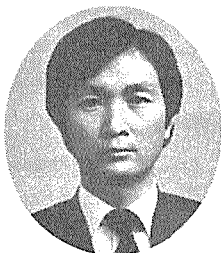


# 油公의 석유개발현황과 전망



李鍾洵  
(油公 석유개발기획부장)

## I. 머리말

인류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가지 資源들이 에너지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20세기 이후 고도의 산업화된 사회가 건설되면서 부터 石油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源으로 군림해 왔을 뿐만 아니라 石油化學産業의 기초 소재로서 인간의 생활속에 매우 깊숙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源 및 소재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1,2차 석유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가들은 石油자원 확보경쟁에 나서게 되었으며,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로서도 石油의 안정공급을 국가 에너지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게 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1962년 창립이래 국내 石油공급의 선두주자로서 산업발전의 젖줄을 담당해 온 油公은 이러한 외부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綜合에너지, 綜合化學企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하에 지난 1980년 이후 石油開發, 石炭, 石油化學 및 新素材, 가스, 수송,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사업 확대를 추진해 왔다.

本稿에서는 우선 80년대 油公의 다각화전략의 핵심부문인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이 지닌 특성과 현재의 석유개발사업이 직면한 주변여건등을 간략히 서술한 다음 1983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油公의 석유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자 한다.

## II. 石油開發事業의 특성

석유개발의 역사가 100여년이나 되는 美國, 유럽국가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가까운 日本 및 臺灣에 비해 그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石油개발은 1970년대 국내 대륙붕개발을 중점으로 출발했으나 해외석유개발은 80년대 들어와서야 비로서 본격화 되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아 자금만 있으면 싣듯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석유개발사업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은 석유개발사업이 지니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석유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

며 사업의 시작인 탐사에서 부터 개발, 생산단계에 이르기 까지 장기간의 자본회임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석유개발사업은 석유발견을 위한 探査井 시추 하나에 평균 몇 백만불에서 천만불을 넘는 돈이 필요하고 石油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생산하기 위한 開發井 시추와 原油처리시설 및 송유관, 수출시설의 건설에 수 억달러가 소요되는 등 대규모 자본투자를 필요로 한다.

또한 石油개발계약상 탐사기간이 6~10년, 개발기간이 4~5년이 되어 성공할 경우에도 탐사시점부터 최초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평균 10여년이 소요되는, Investment Horizon이 여타 일반투자에 비해 매우 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石油개발사업은 성공할 경우 수익성이 큰 (High Return) 반면, 위험도 또한 높은(High Risk)사업이다.

성공할 경우 생산 및 수출시설의 완공후에는 투자비는 물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매력적인 사업이나, 이러한 성공확률은 세계 평균5% 미만으로 대부분의 경우 탐사시추결과 石油가 존재하지 않거나 油徵은 발견하였어도 상업성이 없어 포기해야만 하는 위험도가 극히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석유개발사업의 위험은 상기한 기술적 위험(Technical Risk) 뿐만 아니라, 原油生産시점의 油價하락 가능성 등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 및 鑛區보유국의 국유화조치 등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을 수반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분산 및 관리가 동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셋째로, 石油개발사업은 첨단 기술 및 고급 전문인력을 요하는 사업이다. 탐사단계만 보더라도 인공위성 사진, 항공중력 및 지력탐사, 탄성파탐사 등의 기술이 응용되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石油생성의 기원 및 지하내 石油부존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石油地質, 地球物理, 地化學, 古生物學, 巖石學 등 전문화된 분야의 인력과 시추와 관련된 石油工學 등의 Enginnering Technology는 물론 계약 및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넷째로, 石油개발사업은 이러한 사업의 특성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Risk-Taker로서의 경영층의 의지 및 결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어느 사업이든 사업자체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기초로

한 경영층의 결단력이 요구되지 않은 사업이 없겠으나 특히 石油개발사업의 경우는 상기한 바와 같은 제반 특성들로 인해 경영층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사업참여에 하나의 필요조건이 되며 확률개념으로 나타나는 사업의 특성(Probability Game)에 대해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사업의 특성 때문에 석유개발사업은 어떤 국가나 기업이 쉽게 참여하고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나 일단 성공할 경우의 이익이 막대하고 과거에 실패한 프로젝트등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이익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石油開發事業(Upstream)은 과잉설비 및 시장경쟁으로 경영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石油精製 및 販賣分野(Downstream) 보다 더 매력적인 장기적 수익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 Ⅲ. 石油開發事業 환경 및 최근동향

지구상에 부존해 있는 석유의 가체매장량이란 평면적 관점에서 石油개발사업의 기본여건을 평가한다면 전세계 가체매장량 1조2천억배럴 중 현재까지 생산된 原油는 절반이 채 안되는 5천6백억배럴 정도로서 잔여매장량은 6천4백억배럴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추가매장량 규모가 약 5천5백억배럴로 추정되고 있어 Fundamental Analysis에 입각한 石油개발사업의 전망은 앞으로도 밝으며, 石油자원의 고갈 등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石油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의 石油會社 및 최근 들어 매우 의욕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국내 石油개발사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石油개발사업의 환경은 상기한 일반론적 평가보다는 80년대 이후 특히 1986년의 油價하락을 전후하여 일어나고 있는 매우 인상적이고도 주목할 만한 변화 또는 새로운 추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새로운 특징은 油價하락 및 低油價의 지속에 따른 石油개발사업의 구조적 변화 및 산업재편성 현상이다.

石油개발사업의 호황(Boom)과 불황(Slump)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油價이다. 공급과잉이라는 경제적 불균형에서 야기된 1986년의 유가하락은 기존의 石油개발업체의 수익성을 극도로 저하시킴과 동시에 현금유입(Cash Inflow)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 옴으로서 石

油개발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石油會社나 石油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던 기업들에게는 石油개발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油價하락에 따른 매장량 및 기업자산의 가치하락으로 현금이 풍부한 회사는 탐사투자 대신 매장량 증대를 위한 기업합병을 추진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들에 의한 기 취득광구의 持分 賣却(Farmout)이 활발해짐에 따라 石油개발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던 기업이나 국가에게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참여기회가 제공되었던 것이다.

1987년중 배럴당 18불선에서 비교적 안정을 보였던 油價는 작년말의 비엔나 OPEC총회 이후 다시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油價의 약세현상은 1988년에도 石油개발사업에 새로운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이후의 石油개발사업에 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추세는 탐사지역의 확대 및 지역적 다변화, 기술적 전문화 추세이다.

과거와는 달리 향후의 石油개발은 기존의 石油탐사 및 개발로 그 대상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점차 오지화되고 탐사작업 조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탐사개념도 전통적인 石油탐사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 및 방법이 부단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探査비용절감과 石油발견을 위한 探査 및 개발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자금압박으로 탐사투자를 축소하려는 石油會社들이 성공율을 제고시키고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별, 대륙별로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참여함에 따라 국제석유회사들 별로 참여지역이 特化되는 추세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새로운 발전은 非OPEC국가에서의 石油개발 확대이다. 石油의 매장량 및 생산에 관한 한 OPEC의 위치는 아직도 지배적이나, 새로운 富와 국가발전을 기대하는 많은 非OPEC開途國들이 비교적 좋은 계약 및 탐사조건으로 자국내에서의 외국 石油開發會社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80년대 들어서 非OPEC지역에서의 석유개발활동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을 위한 石油개발회사들의 노력이 과거보다 매우 커진 점도 80년대 石油개발사업의 새로운 추세라 하겠다. 참여지분비율을 과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일정持分을 賣却(Farmout)한다거나 石油開發 Project 간의 Risk Portfolio구성을 위해 美國系 石油會社들이 자국내의 탐사활동(Low Risk, Low Return)을 開途國(High Risk, High Return)으로 집중하는 반면, 日本 및 유럽계 회사들은 開途國 지역에서 美國내로 탐사활동을 이동시키는 현상 등이 그 실례이다.

#### IV. 油公의 石油개발전략 및 사업추진현황

1987. 12. 21일자 Oil and Gas Journal 紙는 北에멘 마리브 油田의 본격적인 原油생산 및 수출과 관련하여, 韓國콘소시엄을 대표하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油公의 石油개발사업에 대해 「韓國精油會社 油公, 石油開發事業 진출에 있어 매우 인상적인 성공을 거둠」이라는 題下의 특집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불과 5년전인 1983년 油公 石油개발사업의 효시인 인도네시아 카리문釐區 개발사업참여에 이어 2번째의 참여 사업인 마리브사업에서의 성공으로 油公의 석유개발사업 진출과정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초기의 성공이 사업의 영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보장해 줄 수는 없으므로 석유개발사업의 꾸준한 확대 및 성공을 위하여 油公은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장기비전과 전략개념 확립을 통하여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1. 油公의 石油개발사업 전략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油公의 석유개발사업 진출은 종합에너지, 종합화학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수립 속에 이루어졌다. 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인 石油精製 및 판매분야의 수익감소를 보상하고 석유개발에서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통합에 의해 장기적인 경쟁력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安定/存續 戰略(Survival strategy)목표와 새로운 영역인 상류부문 진출에 따른 사업의 成長/확대 전략(growth strategy)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사업으로서 석유개발사업 참여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대말까지 油公소요 원유의 15%를 개발원유로 확보하고 자체기술축적을 바

탕으로 石油개발의 독자운영능력(Operatorship)을 갖추는 방향제시가 설정되어졌다.

石油개발사업의 신참자로서의 油公은 주어진 사업목표와 전술한 바 있는 석유개발의 독특한 사업속성, 그리고 80년대 이후 석유개발환경의 새로운 변화 내지 추세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油公의 능력에 맞는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구체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위험의 분산 및 소지분 참여

석유개발사업에 새로 진출한 油公으로서는 사업자체가 지닌 높은 위험부담과 자금, 기술 등의 제한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규모 지분으로 다수 프로젝트의 참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투자대상 및 政治圈域(OPEC 및 非OPEC)의 분산, Project Portfolio 상의 High Risk 사업과 Low Risk 사업과의 적절한 구성등을 추구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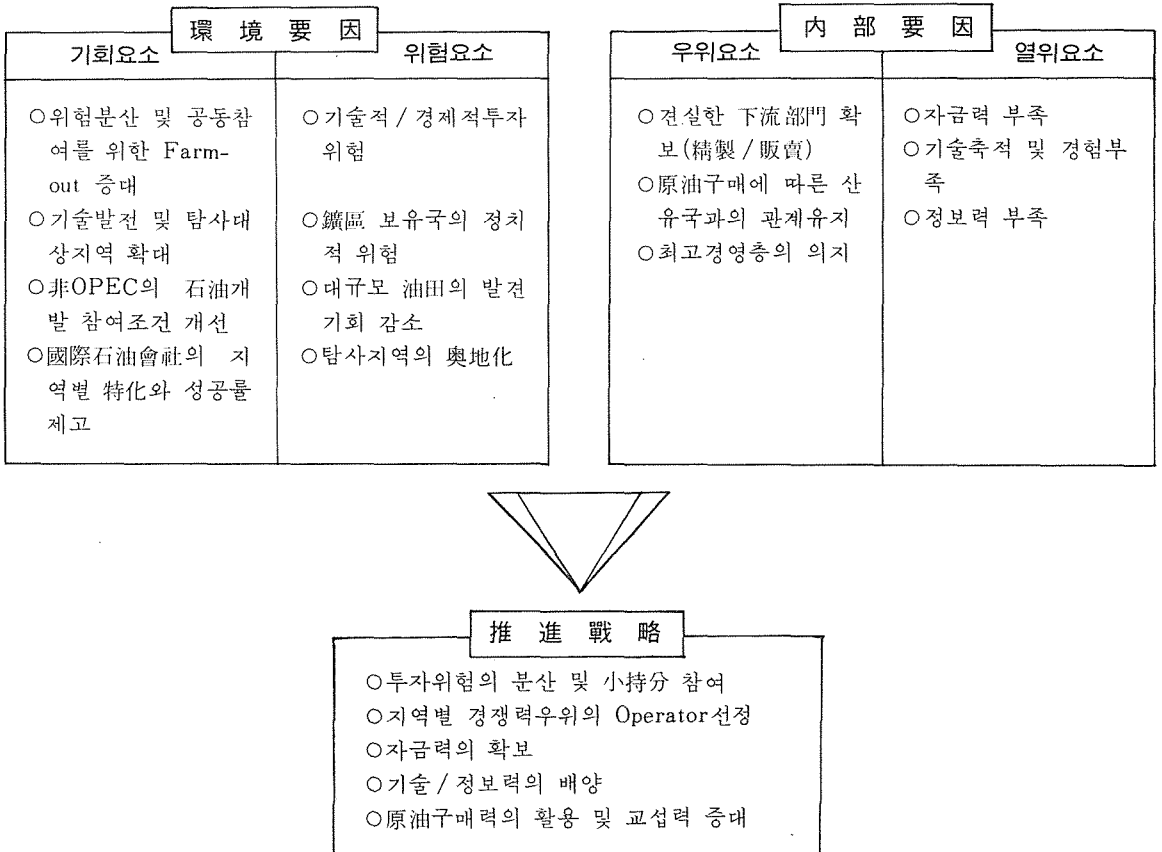
둘째, 지역별 경쟁력 우위의 運營權者(Operator) 선정이다.

油公은 신규사업 참여시 鑛區의 기술적 평가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점은 해당 Project의 운영권자에 대한 평가이다. 기술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油公으로서는 사업파트너로서 國際一流石油開發會社(Major) 또는 獨立系會社(Independent)중 특정지역에서 기술 및 사업경험이 우위에 있는 운영권자를 선택하는 것이 사업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운영권자의 평가 및 선택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셋째, 해외자금의 확보이다.

石油개발사업은 대규모의 투자자금을 장기간 소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원적인 자금원천을 개발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油公은 1983년 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한 이래 사업자금조달 및 외환 Risk 관리등의 관점에서 海外轉換私債(CB : Convertible Bond) 및 變動金利付債權(FRN : Floating Rate of Note)등 장기, 저리의 海外起債

〈그림 - 1〉 油公의 石油개발사업 전략



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다양하고 유리한 海外金融技法을 개발할 계획이다.

넷째, 기술력의 배양이다.

기술력은 석유개발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며, 油公이 장차 운영권자가 되기 위해서도 기술력 배양은 급선무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석유개발 기술수준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보단계임을 감안하면, 비록 油公이 마리브사업을 비롯한 기타 여러사업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역시 일천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油公은 고급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단기 해외연수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 초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교육·훈련과 이에 맞는 조직의 신설 등 단계적인 기술력 배양을 추진 중이며, 향후 더욱 확대 실시한 계획이다.

또한 해외 파트너사와의 유대관계를 활용하고 잦은 기술실무회의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현장실습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기술력 배양에 걸맞게 필요장비도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 2. 油公의 석유개발사업 추진현황

油公은 1983년의 인도네시아 카리문 鑛區 참여를 시발점으로 하여 그 동안 7개 석유개발사업과 3개의 사전조사 및 입찰사업에 참여해 왔다.

1988년초 현재, 사업이 종료되거나 철수한 사업을 제외하면 현재는 북예멘 마리브 鑛區를 비롯하여 수단, 에콰도르, 브라질,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아의 6개 석유개발사업과 인도네시아 및 이집트 2개 사전조사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 (1) 인도네시아 카리문 鑛區

1983년 4월 23일 국내 정부사로서는 처음으로 美國의 Conoco社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의 카리문 鑛區의 石油 개발에 5%의 지분으로 참여하여 8개월동안 8개공의 探査井을 시추하였으나, 다수의 가스층과 미미한 油徵을 발견하였을 뿐 商業性이 없어 동 鑛區를 1984년 1월 13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반납하였다.

비록 실패는 하였으나, 油公으로서의 해외석유개발사업 효시로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게된 셈이었다.

### (2) 모리타니아 Block-9 鑛區

油公은 1984년 9월 29일 美國의 OXOCO社와 공동으로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 육상 Block-9 鑛區에 25%의 持分으로 참여하여 광범위한 지표지질조사 및 지구물리 探査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탐사작업의 해석결과 유망구조의 부재로 탐사 개시 1년만에 모리타니아정부에 동 광구를 반납하고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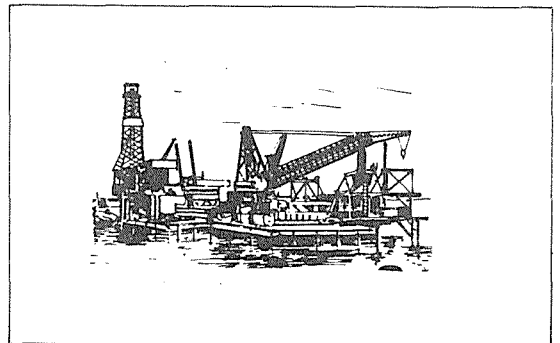
### (3) 북예멘 마리브(Marib) 鑛區

이러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油公은 韓國콘소시엄(油公, 三煥, 現代, 油開公)을 대표하여 1984년 2월 29일 북예멘의 마리브 鑛區에서 100%의 탐사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던 美國의 텍사스소재 Hunt Oil社의 자회사인 Yemen Hunt Oil社로 부터 동 鑛區의 24.5%지분을 인수하여 아라비아반도 유일의 石油 非生産國인 북예멘의 石油 개발에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1984년 최초의 탐사시추정인 Alif 제1정에서 原油발견에 성공한 바 있으며, 1985년말 상업적 규모의 油田입이 확인되었고 이어 약2년여에 걸친 開發井시추와 原油생산 및 수출시설건설이 1987년말에 완공되어 본격적인 생산을 개시하였다.

특히, 과거 北韓과 단독 수교국이었던 북예멘은 국내 기업들이 마리브 油田개발참여 및 양국의 경제교류의 확대등에 따라 1985년 8월 우리나라와 정식외교관계가 수립된 바 있으며 본 생산原油의 수출항인 Salif는 홍해에 위치하고 있어 최근 다시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페르시아만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油田개발 사업의 성공은 코데코에너지(주)가 지난 1981년 인도네시아서 마두라 油田개발에 진출한 이래



6년만에 이룩한 쾌거로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한 모든 손실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출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일대 전환점을 이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도 마리브鑛區내에 확인된 구조 및 현재까지 정밀 探査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탐사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4) 수단 나일(Nile) 및 동골라(Dongola) 鑛區

1985년 11월 油公은 美國의 Sun Oil社로부터 Sun社가 운영권자로 석유탐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아프리카 수단의 나일 및 동골라 鑛區의 지분 중 14.5%를 인수함으로써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鑛區내에서의 石油발견을 위해 현재까지 상당량의 탄성파탐사 및 몇개의 探査井이 시추되었으나, 광구내 지질구조가 복잡하고 광구규모도 한반도 크기의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탐사된 지역은 아직 전 鑛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80년대초 美國의 Chevron 社가 수단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油田을 발견한 이래 수단 전역에서의 石油발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동 광구에 대한 石油탐사사업은 1988년에는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이며 확인된 주요 구조들에 대한 집중적인 탐사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5) 기타 참여증인 사업

1987년도는 油公에게는 새로운 鑛區확보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마리브사업의 성공으로 油公의 이름이 국제석유개발업계에 상당히 알려진 탓도 있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1986년의 油價하락에 따른 석유개발회사들의 持分賣却 추세를 타고 油公은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石油발견가능성이 높은 유망지역의 石油開發事業에 새로이 참여할 수 있었다.

1987년 5월 에콰도르정부(CEPE)와 油公을 포함한 참여시간에 계약이 체결된 에콰도르B-12鑛區의 경우는 국제 공개입찰에 의해 획득한 광구로 국제 석유개발회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하여 확보한 광구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에콰도르 내륙 Oriente 분지에 위치한 B-12鑛區는 美國의 Tenneco社가 운영권자로 물리探査 및 해석작업을 수행중이며, 油公의 참여지분은 25%이다.

에콰도르사업과 함께 油公이 1987년에 참여한 말레이시아 해상 SK-7鑛區의 탐사사업은 韓國의三星과 공동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臺灣의 Chinese Petroleum Corporation 의 海外石油探査 전문자회사인 OPIC가 운영권자로 현재 물리탐사 및 해석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1987년에 참여한 상기 석유개발사업들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탐사/시추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에콰도르B-12鑛區와 말레이시아의 SK-7鑛區는 인접 광구에서 계속 石油가 발견되는 등 石油발견 가능성이 높아 올하반기 이후 탐사추진계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공동으로 석유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臺灣의 OPIC社로부터 20%의 지분을 양도받아 파푸아뉴기니아PPL-59鑛區 石油探査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파푸아뉴기니아는 石油탐사 및 개발에 있어 과거 탐사가 거의 되지 않은 처지로서 평가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Juha 및 Iagifu등의 油田에서 대규모 石油에서 대규모 石油埋藏量이 발견됨에 따라 1980년대 들어 새로운 탐사지역중 가장 각광받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동 광구는 올해에 광범위한 물리탐사를 거친 다음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추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정 鑛區의 石油探査事業 참여와는 별도로 油公은 石油발견 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및 이집트 지역에서 외국석유회사들과 사전조사 및 공동입찰을 위한 Study/Bidding Group을 결성, 1988년에 동지역내에 예상되는 유망鑛區 분양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공동조사사업은 사업참여 기회의 모색이란 측면뿐만 아니라 탐사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보다 매우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石油지질 및 기술자료를 획득하고 내부인력의 경험 축적에 많은 도움이 되며 외국석유회사와의 관계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油公은 향후 이러한 Study/Bidding Group의 참여에 의한 사업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V. 맺는말

石油資源은 금세기는 물론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주종 에너지源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石油化學의 원재료로서 중요한 자원으로 틀림없으며, 향후 그 개발가능한

잠재 매장량은 세계 곳곳에 충분히 산재해 있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油公은 향후에도 기 수립된 기본전략에 따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석유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리브사업으로 부터 창출되는 자금 및 해외금융기법을 충분히 활용하고 누적된 석유개발 경험을 살려 기 추진중인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개발원유도입 목표달성을 위해 매년 2 - 3 개의 신규사

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 분석을 통해 石油부존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막, 정글, 극한대지역을 막론하고 찾아나설 것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의 발전을 가정할 때 10년뒤의 油公은 석유개발사업 분야에서 능력있는 운영권자의 위치에 올라섬으로써 세계적인 石油會社의 대열에 당당히 동참하여 국가와 회사의 명예를 드높이게 될 것이다. ⊗

